

중동 산유국의 경제다각화와 협력 시사점: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중심으로

이권형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위원(khlee@kiep.go.kr, Tel: 044-414-1073)

손성현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전문연구원(shson@kiep.go.kr, Tel: 044-414-1266)

장윤희 구미·유라시아본부 아중동팀 연구원(yhjang@kiep.go.kr, Tel: 044-414-1330)



차 례

1. 머리말
2. 경제다각화 추진 배경과 장기 경제비전
3. 주요 경제다각화 정책
4. 사우디 및 UAE와의 경제 협력 관계
5. 협력 시사점

주요 내용

-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석유 중심 경제구조로 인한 성장을 부침과 실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기 비전을 발표하고 경제다각화에 박차를 가하고자 함.
 - 2018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경제성장률은 국제유가 상승, 재정확대정책, 비석유부문 성장세 지속 등에 의해 2017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에너지 관련 수출이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경제 전반이 유가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가운데 유가 하락과 자국민의 실업률 상승은 양국이 경제다각화 추진을 강화하도록 한 요인이 됨.
- ▶ 양국은 장기 비전 아래 재정 건전성 확보, 민간부문 육성, 인적자원 개발을 중심으로 경제다각화 관련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에너지 보조금을 축소하여 불필요한 재정지출을 줄이고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를 도입하여 비석유부문 수입을 늘려나가고자 함.
 - 양국 모두 파산법 및 투자법과 같은 제도 개선과 함께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강화하고 있으며, 관광,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등의 전략산업에 대한 투자도 확대하고 있음.
 - 또한 실업률 증가를 억제하고 자국민의 민간부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한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등을 통한 인적자원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음.
-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교역, 투자, 건설 부문에서 중동 지역 내 한국의 주요 협력국임.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중동 지역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의 대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교역은 원유 등 에너지 수입 규모가 수출 규모에 비해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 한국의 대중동 투자에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상위 2개 투자대상국이며, 중동의 대한국 FDI,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투자에서도 양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 양국의 건설 시장이 토목과 건축 등을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우리나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해외건설 수주 금액 및 비중 모두 감소세를 보임.
- ▶ 경제다각화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석유산업 이외의 다양한 전략산업 육성인 만큼 우리나라는 산업발전 경험과 선진기술 등을 토대로 산업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며, 에너지 협력 차원에서도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소비효율 등 다양한 부문에서 협력사업을 발굴해야 함.
 - 이러한 협력사업을 통해 한·중동 경제협력이 단순히 수출시장을 확대하는 것에 그치지 말고 경제다각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해야 함.

1. 머리말

■ 2014년 하반기 국제유가 급락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 수출 및 재정수입에 대한 석유산업 의존도가 큰 중동 산유국에서는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와 함께 경제성장 둔화가 지속되고 있음.

- 2011년부터 2014년 중반까지 국제유가는 배럴당 100달러를 넘어섰으나 2016년 초 20달러대까지 하락하였으며, 이후 감산정책 등의 영향으로 최근에는 배럴당 60달러대를 유지하고 있음.
- 유가 하락으로 중동 산유국의 경상수지 및 재정수지가 악화되고, 이로 인해 주요 인프라 및 산업설비 건설이나 유전 개발 등 신규 투자가 위축되면서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성장률과 높은 실업률이 유지되고 있음.

그림 1. 국제유가 추이

(단위: 달러/배럴)



주: 일별 유가 기준.
자료: Bloomberg.

■ 이에 중동 산유국들은 석유산업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경제다각화(Economic Diversification)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음.

- 석유부문 이외에 제조업, 신재생에너지, 금융, 관광, 물류 등 전략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중소기업 지원, 외국인 투자 관련 제도 개선, 국영기업의 민영화 등을 통해 민간부문의 기업 활동 및 투자를 확대하고자 함.
-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해서 보조금 삭감을 통해 에너지 요금을 인상함과 동시에 부가세 등 새로운 조세를 부과하여 재정수입을 늘리고자 함.

■ 이 글에서는 이러한 중동 산유국의 정책 변화를 반영하여 한·중동 경제협력을 확대하는 데 필요한 시사점을 찾아보고 이에 관련된 정책을 제안하고자 함.

- 1970년대 이후 한·중동 경제협력은 원유 수입과 현지 건설 프로젝트 수주에 집중되어왔으나 이제 산유국의 경제다각화 정책에 따라 국내 산업화 경험과 우수한 기술 및 전문인력을 토대로 다양한 부문의 산업 및 에너지협력으로 다변화해야 할 시점임.

2. 경제다각화 추진 배경과 장기 경제비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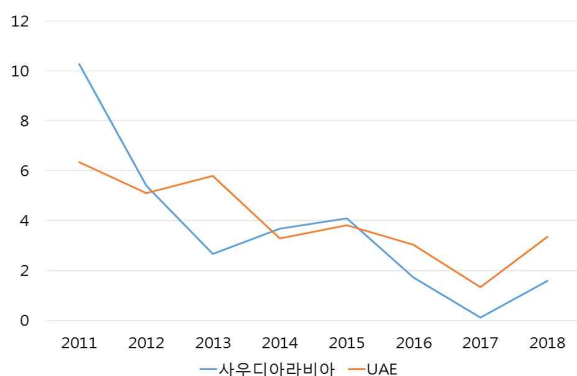
가. 경제 동향 및 전망

■ [2017년 경제 동향] 국제유가 상승에도 불구하고 원유 감산에 의해 석유부문이 위축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17년 상대적으로 저조한 성장률을 보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원유 감산과 재정지출 축소에 의한 투자 감소로 2017년 0.1%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¹⁾
 -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부문은 OPEC 감산 합의에 따른 원유 생산량 축소(2016년 일일 1,041만 배럴 → 2017년 995만 배럴)로 -1.9%의 성장세를 보였으며, 비석유부문은 민간소비 감소, 건설 투자 부진 등의 영향에 의해 1.7%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²⁾³⁾
- UAE는 2020년 엑스포 관련 인프라 건설 확대에 의한 비석유부문(3.3%)의 호조세가 석유부문의 마이너스 성장을 상쇄하여 2017년 1.3%의 성장률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⁴⁾
 - UAE의 원유 생산량이 감소하면서(2016년 309만 배럴 → 2017년 297만 배럴) 석유부문은 -2.9%의 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⁵⁾

그림 2. 연도별 경제성장률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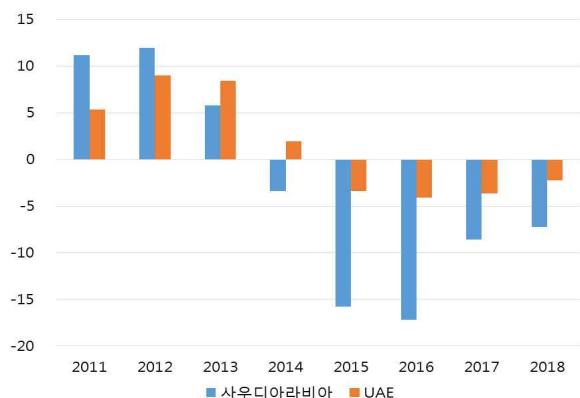


주: 2017년은 추정치이며, 2018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
검색일: 2018. 3. 2).

그림 3. 연도별 재정 수지(GDP 대비)

(단위: %)



주: 2017년은 추정치이며, 2018년은 전망치임.

자료: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
(<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
검색일: 2018. 3. 2).

- 1)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 검색일: 2018. 3. 2).
- 2)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 검색일: 2018. 3. 2).
- 3) OPEC(2018), *Monthly Oil Market Report*, p. 61. (February)
- 4)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 검색일: 2018. 3. 2).
- 5) OPEC(2018), *Monthly Oil Market Report*, p. 61. (February)

■ [2018년 경제 전망]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2018년 경제성장률은 유가 상승과 재정확대정책, 비석유부문의 성장세 지속 등으로 2017년 대비 소폭 상승할 것으로 전망됨.

- 사우디아라비아는 재정확대 기조에 힘입어 2018년 1.6%의 성장률을 달성할 것으로 보임.⁶⁾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8년에 '사우디 비전 2030'의 이행을 본격화하여 경제 체질을 바꾸는 원년으로 삼고자 전년보다 5.6% 증가한 2,608억 달러 규모의 2018년 예산을 편성하였음.⁷⁾
- 또한 그동안 중단 및 연기되었던 건설 프로젝트를 재개하기 위해 인프라 및 교통 관련 예산도 전년보다 86.2% 인상하였음.
- UAE의 2018년 성장률은 석유부문의 회복세와 2020년 두바이 엑스포 관련 인프라 건설에 의한 총고정자본투자 증가로 3.4%를 달성할 것으로 전망됨.⁸⁾
- OPEC 감산 합의 연장으로 UAE의 원유 생산량은 일일 290만 배럴을 유지할 것이나 유가 상승의 영향으로 석유부문은 3.3%의 완만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됨.⁹⁾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2018년 물가 상승률은 부가세 도입, 천연가스, 전기 및 수도 요금 등의 지속적인 인상 등으로 각각 5.0%, 2.9%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됨.¹⁰⁾

나. 경제다각화 추진 배경

■ [유가 하락]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원유 등 에너지 관련 품목 수출이 주요 수입원 중 하나로 경제 전반이 유가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의 전체 수출액 중 석유수출액 비중은 2000년대 이후 계속해서 80% 이상을 차지하다가 2014년 하반기 유가가 하락하면서 2015년에 75.1%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에는 74.8%를 기록함.¹¹⁾
- 2015년 이후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수출 비중이 낮아지는 추세는 경제구조 변화의 결과라기보다는 석유수출액 감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 사우디아라비아의 석유 의존도는 여전히 높은 편으로, 유가 하락은 석유수출 수입(收入)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져 2015년 석유수출 수입은 전년대비 약 47% 감소한 1,573억에 그쳤으며 2016년에는 1,330억 달러로 줄어듦.¹²⁾
- UAE의 전체 수출액 중 석유수출액 비중은 꾸준히 감소하여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다른 GCC 산유국

6)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 검색일: 2018. 3. 2).

7) Saudi Arabia Ministry of Finance(2017), *Budget Statement for the Fiscal Year 2018*, p. 69.

8)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 검색일: 2018. 3. 2).

9)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 검색일: 2018. 3. 2).

10) IMF, World Economic Outlook Database October 2017(<http://www.imf.org/external/pubs/ft/weo/2017/02/weodata/index.aspx>, 검색일: 2018. 3. 2).

11) OPEC(2008), *Annual Statistical Bulletin*, pp. 12~13; OPEC(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Annual Statistical Bulletin*, pp. 16-17; OPEC(2017), *Annual Statistical Bulletin*, pp. 19-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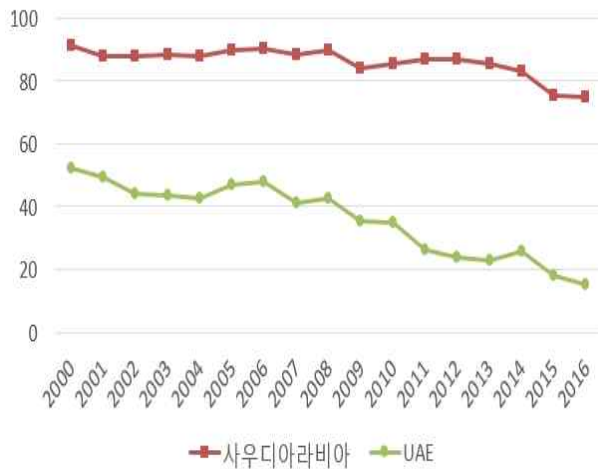
12) EIA, OPEC Revenues Fact Sheet(<https://www.eia.gov/beta/international/regions-topics.cfm?RegionTopicID=OPEC>, 검색일: 2018. 2. 28).

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음.

- 이는 UAE의 비석유부문 육성 추진 및 재수출 비중 증가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UAE 석유수출액 비중은 2015년 17.9%로 하락한 이후 2016년에 15.3%를 기록함.¹³⁾
- 2015년 기준 UAE의 재수출 규모는 1,348억 달러로 전체 수출의 44.9%를 차지하였으며 2016년에는 47.1%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¹⁴⁾
- UAE의 석유수출 수입도 유가 등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아 2015년부터 큰 폭으로 감소하였으며 2016년 석유수출 수입은 468억 달러로 줄어듦.¹⁵⁾

그림 4. 전체 수출액 중 석유수출액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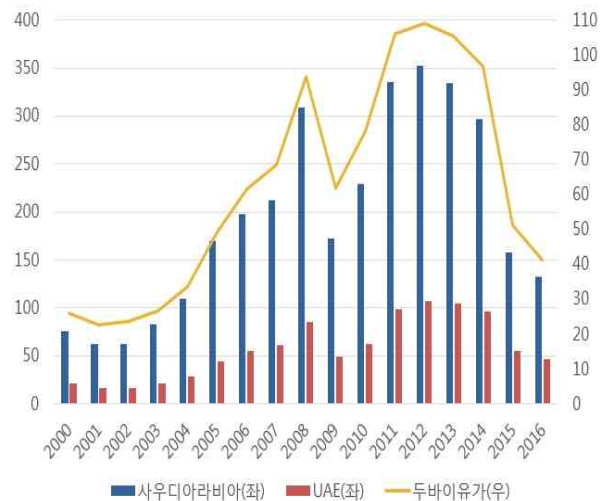
(단위: %)



자료: OPEC(2008), *Annual Statistical Bulletin*, pp. 12-13; OPEC(2009,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Annual Statistical Bulletin*, pp. 16-17; OPEC(2017), *Annual Statistical Bulletin*, pp. 19-20.

그림 5. 석유수출 수입 및 국제유가 추이

(단위: 십억 달러(좌), 달러/배럴(우))



자료: EIA, OPEC Revenues Fact Sheet(<https://www.eia.gov/beta/international/regions-topics.cfm?RegionTopicID=OPEC>, 검색일: 2018. 2. 28); World Bank Commodity Price Data, Annual Prices(<http://www.worldbank.org/en/research/commodity-markets>, 검색일: 2018. 2. 28).

■ [자국민 실업률 상승]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모두 자국민의 실업률이 외국인에 비해 높은 편으로, 특히 청년층과 여성이 높은 실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실업 문제 대응이 정부의 주요 과제로 부상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기준 사우디인의 실업률이 남성과 여성 모두 외국인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우디 여성의 실업률이 남성보다 훨씬 높은 수준을 보임.
- 2016년 사우디 남성과 여성 실업률은 각각 5.9%, 34.5%를 기록하였으며 사우디인 전체 실업률은 12.3%에 달함.¹⁶⁾
- 사우디아라비아의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2015년 29.0%에서 2016년 34.6%로 상승한 이후 2017년

13) OPEC(2017), *Annual Statistical Bulletin*, pp. 19-20.

14) IMF(2017), *UAE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p. 2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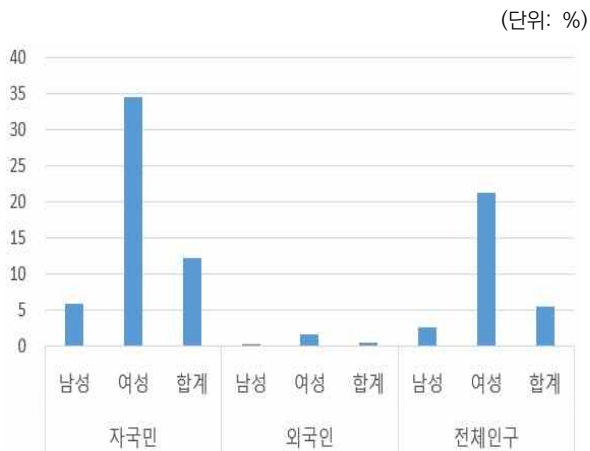
15) EIA, OPEC Revenues Fact Sheet(<https://www.eia.gov/beta/international/regions-topics.cfm?RegionTopicID=OPEC>, 검색일: 2018. 2. 28).

16) SAMA, Economic Reports and Statistics, Yearly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2016(<http://www.sama.gov.sa/en-US/EconomicReports/Pages/YearlyStatistics.aspx>, 검색일: 2018. 2. 28).

에도 34.7%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¹⁷⁾

- 여성 청년층의 실업률도 2017년 60.3%로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 UAE의 실업률은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낮은 편이나 자국민 여성 실업률이 높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음.
- 2016년 UAE인 전체 실업률은 6.9%를 기록한 가운데 남성이 4.5%, 여성이 12.0%의 실업률을 보임.
- 한편 UAE의 청년층(15~24세) 실업률은 2016년에 4.9%, 2017년에 5.1%를 기록하였으며, 여성 청년층 실업률도 8.6%에서 8.9%로 소폭 상승한 것으로 추정됨.¹⁸⁾
- 빠른 인구증가, 학력수준 상승, 공공부문 취업 선호 등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자국민의 실업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이에 반해 공공부문 일자리는 증대에 한계가 있어 각국 정부는 민간부문에서의 자국민 고용 확대를 추진하고 있음.

그림 6. 사우디아라비아 실업률(2016)



자료: SAMA, Economic Reports and Statistics, Yearly Statistics, Annual Statistics 2016(<http://www.sama.gov.sa/en-US/EconomicReports/Pages/YearlyStatistics.aspx>, 검색일: 2018. 2. 28).

그림 7. UAE 실업률(2016)



자료: Federal Competitiveness and Statistics Authority, Statistics, Statistics by Subject, Labor Force, Labor Force 2016(<http://fcsa.gov.ae/en-us/Pages/Statistics/Statistics-by-Subject.aspx>, 검색일: 2018. 2. 28).

다. 장기 경제비전과 경제다각화

- [사우디 비전 2030] 사우디아라비아의 무함마드 빈 살만(Mohammad Bin Salman) 왕세자는 2016년 4월 새로운 장기 개발 계획인 '사우디 비전 2030'을 발표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도 함께 추진하고 있음.

17) ILO, Statistics and database, ILOSTAT, Unemployment rate(http://www.ilo.org/ilostat/faces/oracle/webcenter/portalapp/pagehierarchy/Page3.jspx?MBI_ID=2&_afLoop=776372611838830&_afWindowMode=0&_afWindowId=kynihznpf_18#!%40%40%3F_afWindowId%3Dkynihznpf_18%26_afLoop%3D776372611838830%26MBI_ID%3D2%26_afWindowMode%3D0%26_adf.ctrl-stat%3Dkynihznpf_62, 검색일: 2018. 3. 2).

18) ILO, Statistics and database, ILOSTAT, Unemployment rate(http://www.ilo.org/ilostat/faces/oracle/webcenter/portalapp/pagehierarchy/Page3.jspx?MBI_ID=2&_afLoop=776372611838830&_afWindowMode=0&_afWindowId=kynihznpf_18#!%40%40%3F_afWindowId%3Dkynihznpf_18%26_afLoop%3D776372611838830%26MBI_ID%3D2%26_afWindowMode%3D0%26_adf.ctrl-stat%3Dkynihznpf_62, 검색일: 2018. 3. 2).

- ‘사우디 비전 2030’은 활기찬 사회, 번영하는 경제, 진취적인 국가라는 3개 영역별 주요 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추진 전략 등을 포함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본 계획의 이행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단기 목표 및 정책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관리·감독기구를 설립하였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6년 6월 ‘사우디 비전 2030’과 관련해 2020년까지의 부처별 목표를 제시한 국가변혁프로그램(National Transformation Program)을 발표한 뒤 국가성과관리센터(National Center for Performance Management)를 설립하여 정책 추진 상황을 관리 및 감독하고자 함.¹⁹⁾
- 또한 재정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재정균형프로그램(Financial Balancing Program), 신속한 의사결정 및 성과 향상을 위한 정부구조조정프로그램(Government Restructuring Program) 등을 도입하였음.
- 이와 함께 관광, 신재생에너지, 광업, 방위산업, 소매업 등을 전략적으로 육성하여 자국민 고용 확대 및 탈석유화를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표 1. ‘사우디 비전 2030’의 영역별 주요 목표

3대 영역	주요 목표	추진 전략
활기찬 사회	· 연간 수용 가능 순례객 수: 800만 → 3,000만 · UNESCO에 등재된 문화유산을 현 수준의 2배로 확대 · 사회적 자본지수 순위: 26위 → 10위 · 평균 기대수명: 74세 → 80세	· 성지 순례객 관련 서비스 및 인프라 개선 · 비자발급 절차 간소화 및 자동화 · 효율적이고 질 높은 의료 서비스를 위한 민영화
번영하는 경제	· 사우디인 실업률: 11.6% → 7.0% · 중소기업 생산액의 GDP 대비 비중: 20% → 35% ·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 22 → 30% · 경제 규모 순위: 19위 → 15위 · PIF 자산: 6천억 리얄(1,600억 달러) → 7조 리얄(1조 8,665억 달러) · 외국인 직접투자의 GDP 비중: 3.8% → 5.7% · 민간부문의 GDP 비중: 40% → 65%	· 벤처 캐피탈, 인큐베이터 및 펀드 설립 · 2030년까지 군수품의 50% 이상 자국화 · 광업 분야에 9만 개의 일자리 창출, 구조개혁 추진 · 신재생에너지를 통해 9.5GW의 전력 생산, R&D 분야 자국화, 제도 개선 · 소매업 융성을 통해 자국민 1백만 명 취업 기회 제공, 외국인 투자자 소유권 제한 완화
진취적인 국가	· 비석유부문 재정수입: 1,630억 리얄(434억 달러) → 1조 리얄(2,666억 달러) · 정부 효율성 지수 순위: 80위 → 20위 · 전자정부 순위: 36위 → 5위 · 가계 소득 중 저축 비중: 6% → 10%	· 정부 재정지출의 효율성 증대 · 효율적인 전자정부 시스템 구축(지리정보, 보건의료, 교육 등으로 서비스 범위 확대, 의사소통 채널 다양화, 정부 기관의 온라인 애플리케이션 사용 확대)

자료: Saudi Vision 2030, Vision, Goals(<http://www.vision2030.gov.sa/en/goals>, 검색일: 2018. 3. 10).

■ [UAE 연방정부 및 지방정부 개발 계획] UAE는 연방정부 차원에서 통합적 국가 개발 계획을 추진함과 동시에 각 지방정부가 개별 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정책을 추진 중임.

- 2010년 발표된 장기 국가 개발 계획인 ‘UAE 비전 2021’은 사회, 안보 및 사법제도, 경제, 교육, 보건의료, 환경과 관련된 6개의 국가 의제를 선정하여 UAE가 각 부문에서 세계적 선도국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측정하기 위한 세부 지표를 제시하고 있음.²⁰⁾

19) IMF(2017), *Saudi Arabia 2017 Article IV Consultation*, p. 4.

20) UAE Vision 2021, UAE Vision(<https://www.vision2021.ae/en/our-vision>, 검색일: 2018. 3. 12).

- 아부다비는 2008년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의 세부 내용을 발표하며 2030년까지 경제기반을 효과적으로 전환하여 지속가능하고 다각화된 고부가가치 경제구조를 구축할 계획임을 밝힘.
- 목표 달성을 위해 경제활동 부문 확장, 기업기반 확충, 대외시장 확대, 경쟁력 및 생산성 향상 등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으며 노르웨이, 아일랜드, 뉴질랜드를 벤치마킹 대상으로 선정함.²¹⁾
- 2008년부터 2030년까지의 기간을 3단계로 나누어 단계별 경제 목표치를 제시하고 있으며, 5개년 경제 계획을 통해 세부적인 중단기 계획을 수립하고 정기적으로 성과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²²⁾
- 또한 미래 성장 동력이 될 주요 산업을 세계적, 지역적 중점 부문으로 구분하였는데, 세계적 중점 부문에는 에너지, 화학, 금속 및 광물, 항공, 방산, 제약, 관광, 보건 의료 등이 포함되었으며 지역적 중점 부문에는 수송, 물류, 교육, 미디어, 금융 및 통신 서비스 등이 분류됨.²³⁾
- 두바이는 2016년 제조업 육성 계획인 ‘두바이 산업전략 2030’을 발표하고 6개 중점 산업을 제시함.²⁴⁾
- ‘두바이 산업전략 2030’은 제조업 총생산량 및 부가가치 증대, 지식 및 혁신 수준 향상, 환경 친화적·에너지 효율적 제조업 육성과 함께 두바이를 세계적 생산기지 및 이슬람 제품 시장의 허브로 만드는 것을 주요 목표로 함.
- 6개 중점 산업에는 항공, 해양, 알루미늄 및 금속가공, 제약 및 의료장비, 식음료, 기계 및 장비가 포함됨.

표 2. UAE 주요 경제 개발 계획

구분	계획	주요 내용
UAE 연방	비전 2021	· 국가 의제: 응집력 있는 사회 및 국민 주체성 보전, 공공안전 및 공정한 사법제도, 경쟁력 있는 지식 경제, 일류 교육체계, 세계적 수준 보건의료 서비스, 지속가능한 환경 및 인프라 · 주요 목표: UAE의 독특한 문화, 전통, 유산을 보전하는 동시에 사회 모든 계층을 통합하는 환경 조성, 안보 및 경찰 서비스에 대한 신뢰성 향상, 지식 기반 경제로의 변환, 고부가가치 산업 장려 등을 통한 경제·관광·상업 중심지로의 전환, 자국민의 민간부문 노동참여율 증대, 모든 학교에 스마트 시스템 구축, 전염병 및 건강 위험 요소에 대응하기 위한 보건 의료 체계 준비 강화, 공항·항구·도로 인프라 전력 세계적 수준으로 향상, 국민 삶의 질 개선
아부다비	경제 비전 2030	· 경제 목표(연평균 실질 GDP 성장률) - 1단계(2008~13년) 및 2단계(2014~19년): 7% - 3단계(2020~30년): 6% · 세계적 중점 부문: 에너지(석유 및 가스), 화학, 금속 및 광물, 항공 및 방산, 제약 및 생명공학, 호텔·레스토랑 및 서비스, 의료장비 및 서비스 · 지역적 중점 부문: 수송·무역 및 물류, 교육, 미디어, 금융 서비스, 통신 서비스
두바이	산업전략 2030	· 주요 목표: 제조업 총생산량 및 부가가치 증대, 지식 및 혁신 수준 향상, 환경 친화적·에너지 효율적 제조업 육성, 세계적 생산기지 및 이슬람 제품 시장의 허브로 성장 · 6개 중점 산업: 항공, 해양, 알루미늄 및 금속가공, 제약 및 의료장비, 식음료, 기계 및 장비

자료: UAE Vision 2021, UAE Vision(<https://www.vision2021.ae/en/our-vision>, 검색일: 2018. 3. 12); The Government of Abu Dhabi(2008), *The 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 p. 10, 11, 113, 114; "Mohammed launches 2030 Dubai Industrial Strategy"(2016. 6. 26), Emirates 24/7(<https://www.emirates247.com/news/government/mohammed-launches-2030-dubai-industrial-strategy-2016-06-26-1.633991>, 검색일: 2018. 3. 16).

21) The Government of Abu Dhabi(2008), *The Abu Dhabi Economic Vision 2030*, pp. 9-10.

22) *Ibid.*, pp. 10-11.

23) *Ibid.*, pp. 113-114.

24) "Mohammed launches 2030 Dubai Industrial Strategy"(2016. 6. 26), Emirates 24/7(<https://www.emirates247.com/news/government/mohammed-launches-2030-dubai-industrial-strategy-2016-06-26-1.633991>, 검색일: 2018. 3. 16).

3. 주요 경제다각화 정책

가. 재정 건전성 확보

■ [특별소비세 및 부가세 도입]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비석유부문 재정수입 확충의 일환으로 2017년 특별소비세를 부과하였으며, 2018년 1월부터는 5%의 부가세를 도입하였음.

- GCC 6개국은 2015년 부가세 도입에 합의하고 2017년 4월 부가세 및 특별소비세에 대한 협의안을 마련한 뒤 2018년부터 공동으로 시행하기로 하였음.
- GCC 협의안에 따라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6월, UAE는 2017년 10월부터 탄산 및 에너지 음료, 담배 등에 대해 50~100%의 소비세를 부과하였음.
- 부가세는 준비 미흡 등을 이유로 쿠웨이트, 카타르, 오만, 바레인이 도입 시기를 연기하면서 2018년 1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만 도입하였음.
- 부가세 도입으로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18년에 각각 90억 달러, 33억 달러의 세수 확충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됨.²⁵⁾²⁶⁾

■ [에너지 요금 인상] 사우디아라비아는 에너지 요금 인상과 서민층에 대한 직접 지원을 병행하고 있으며, UAE는 자국 내 석유 가격을 국제유가에 연동하고 그 외 에너지 보조금을 모두 철폐하고자 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6년 이후 석유, 천연가스, 전기 및 수도 요금을 지속적으로 인상하고 있음.
- 2018년 1월부터는 고급 및 일반 휘발유 가격을 각각 126%, 82% 인상하였으며, 가정용 전기 요금은 6,000kWh까지 kWh당 0.2리얄(0.05달러), 이를 초과 시 kWh당 0.3리얄(0.08달러)로 상향 조정하였음.²⁷⁾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7년 12월부터 에너지 요금 인상에 따른 서민층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현금 보조금을 지급하는 재정지원 프로그램(Citizens Account Program)을 도입하였음.
- UAE 또한 2015년 이후 모든 에너지에 대한 보조금을 축소하고 있으며, 자국 내 석유 가격은 국제 원유 가격에 연동하여 월별로 발표하고 있음.
- 2017년 2월 2디르함(0.54달러)이었던 고급 휘발유(98super) 가격은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2018년 2월 2.36디르함(0.64달러)으로 인상되었음.²⁸⁾

25) "Saudi Arabia and United Arab Emirates introduce VAT for first time"(2018. 1. 1), *BBC*(<http://www.bbc.com/news/business-42508883>, 검색일: 2018. 2. 22).

26) Indrajit, Sen(2018. 1. 4), "Saudi Arabia expects \$9bn of VAT revenue in 2018," *MEED*(<https://www.meed.com/saudi-arabia-expects-9bn-vat-revenue-2018/>, 검색일: 2018. 3. 5).

27) "Fuel prices raised sharply"(2018. 1. 15), EIU Forecast update(<http://country.eiu.com/article.aspx?articleid=1626305946&Country=Saudi%20Arabia&topic=Economy&subtopic=Forecast&subsubtopic=Fiscal+policy+outlook&u=1&pid=1156388499&oid=1156388499&uid=1>, 검색일: 2018. 3. 2).

28) Cherian, Dona, Guides Writer(2018. 1. 28), "Fuel prices increase in UAE for February 2018," *Gulfnews*(<http://gulfnews.com/guides/life/community/fuel-prices-increase-in-uae-for-february-2018-1.1661546>, 검색일: 2018. 2. 22).

나. 민간부문 육성

■ [투자 제도 개선]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파산법과 투자법 개정을 통해 민간 및 외국인 투자를 확대하고자 함.

- 사우디아라비아의 슈라 위원회(The Shoura Council)는 2017년 12월 파산법 초안을 통과시켰으며,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8년 2월 이를 승인하여 연내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음.²⁹⁾
- UAE는 2016년 12월 이미 파산법을 도입하였고 자유무역지대 이외 지역에서 법인 설립 시에도 외국인 지분을 100%까지 인정하는 것에 관한 법률 개정도 추진하고 있음.
- 파산법 도입으로 투자자와의 채무 조정 및 기업회생이 가능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채무 불이행에 따른 형사처벌도 면할 수 있어 중소기업 및 외국인 투자 환경이 상당히 개선될 것으로 기대됨.

■ [민간부문 및 기업 지원 확대] 양국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에 대한 금융 지원을 중심으로 민간기업 육성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경제다각화 및 자국민 고용창출을 위해 민간부문과 중소기업 육성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내놓고 있음.
 - 사우디 중소기업청(Small and Medium Enterprises General Authority)은 2017년 12월 각종 행정 비용 지원(19억 달러), 중소기업 투자금 회수에 대한 정부 보증(2.1억 달러), 비은행권 펀딩 채널 구축(4.3억 달러), 벤처 캐피털 펀드 조성(7.5억 달러)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이니셔티브를 발표하였음.³⁰⁾
 - 사우디아라비아의 국부펀드인 PIF(Public Investment Fund)는 2017년 10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40억 리알(10.7억 달러) 규모의 모태펀드를 조성하겠다고 발표하였음.³¹⁾
- UAE 정부도 금융기관을 통한 중소기업 금융 지원 정책을 강화하고 있음.
 - UAE 중앙은행은 은행별 중소기업 대출 전담부서 조직, 중소기업 대출 목표 설정 및 미달성 시 규제방안 등에 대한 내용을 담은 규정 초안을 2017년 2월에 발표하였음.³²⁾
 - 2018년 1월 UAE의 국영 에미리트 개발은행은 향후 2년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10억 디르함(2.7억 달러) 규모의 기금을 조성했다고 밝혔음.³³⁾

■ [신성장 동력 확보] 일자리 창출 및 탈석유화를 위해 관광, 신재생에너지, 제조업 등을 전략산업으로 선정하여 투자를 확대하고 있음.

29) "New Bankruptcy Law, a 'Step Forward' for Saudi Arabia: Experts"(2018. 2. 20), *Al Bawaba*(<https://www.albawaba.com/print/business/saudi-arabia-new-bankruptcy-law-1091426>, 검색일: 2018. 2. 21).

30) "14 12. 2017." (إطلاق مبادرات برنامج تحفيز القطاع الخاص), Small and Medium Enterprises Authority. News(<https://smea.gov.sa/en/news-events/news/49>, 검색일: 2018. 2. 26).

31) "Saudi Arabia sets up \$1 billion fund to support SMEs"(2017. 10. 9), *The National*(<https://www.thenational.ae/business/economy/saudi-arabia-sets-up-1-billion-fund-to-support-smes-1.665794>, 검색일: 2018. 2. 28).

32) Arnold, Tom(2017. 2. 16), "UAE Central Bank drafts rules pushing banks to lend to SMEs," *Reuters*(<https://www.reuters.com/article/emirates-cenbank-rules/uae-central-bank-drafts-rules-pushing-banks-to-lend-to-smes-idUSL8N1G14QH>, 검색일: 2018. 2. 26).

33) Khan, Sarmad(2018. 1. 22), "The government lender will finance up to 80 per cent of fixed assets and purchases of SMEs with attractive interest rates," *The National*(<https://www.thenational.ae/business/banking/emirates-development-bank-allocates-dh1bn-for-sme-financing-in-2018-19-1.697639>, 검색일: 2018. 2. 26).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관광단지 조성, 신도시 개발 및 제조업 육성과 관련한 다양한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
 -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는 2017년 8월 홍해 지역 관광특구 개발 계획을 밝혔으며, 2017년 10월에는 5,000억 달러를 투자하여 이집트 및 요르단과 인접한 홍해 지역 2만 6,000km² 부지에 생명공학, 식품, 첨단 제조, 미디어 등의 산업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인 네옴(NEOM)을 건설하겠다고 발표하였음.³⁴⁾³⁵⁾
 - 아람코(Aramco)는 제조업 육성의 일환으로 라스 알 카이르(Ras Al Khair) 지역에 현대중공업과 선박 및 발전용 엔진 제조공장 설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음.³⁶⁾
- UAE도 관광부문을 육성하기 위한 인프라 건설을 지속하는 것과 함께 태양광 중심의 신재생에너지 투자를 통해 향후 해외진출도 확대하고자 함.
 - 두바이는 2020년 엑스포 관련 숙박, 교통, 쇼핑물 등의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으며, 아부다비도 루브르, 구겐하임 등의 박물관과 다양한 위락시설을 조성하여 역대 관광 중심지가 되고자 함.³⁷⁾
 - 2017년 1월 UAE 정부는 2050년까지 1,634억 달러를 투자하여 전력 생산의 44%를 신재생에너지로 조달한다는 계획을 발표하면서 자국 태양광 프로젝트를 진행한 경험을 토대로 해외 신재생에너지 프로젝트 참여도 늘려 나갈 것이라고 밝혔음.³⁸⁾

■ [공기업 민영화] 사우디아라비아는 민영화 기구를 설치하고 아람코를 비롯한 주요 공기업 매각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UAE는 공기업 자회사 등 비핵심 부문에 대한 민영화를 추진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 정부는 2016년 '사우디 비전 2030'에서 아람코를 비롯한 다양한 국영기업을 민영화하겠다고 밝힌 후 국가변혁프로그램을 통해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였음.
 - 특히 경제정책 결정기구인 경제개발위원회(CEDA: Council for Economic Development Affairs) 산하에 국립민영화센터(NCP: National Center for Privatization & PPP)를 두어 해당 업무를 총괄하게 함.
 - 가장 대표적인 민영화 계획은 아람코에 대한 IPO를 통해 마련한 자금을 PIF 규모 확대를 위해 투입하는 것임.³⁹⁾
- UAE는 2017년 12월 ADNOC(Abu Dhabi National Oil Company)의 석유 유통 자회사(ADNOC Distribution)를 상장한 뒤, 발행 주식의 10%(8.5억 달러)를 매각하였음.⁴⁰⁾

34) Shahine, Alaa, Vivian Nereim(2017. 8. 1), "Saudi Arabia Plans a Huge Red Sea Beach Tourism Project," *Bloomberg*(<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08-01/saudi-arabia-unveils-plans-for-mega-red-sea-tourism-project>), 검색일: 2018. 2. 27).

35) Shahine, Alaa, Glen Carey and Vivian Nereim(2017. 10. 24), "Saudi Arabia Just Announced Plans to Build a Mega City That Will Cost \$500 Billion," *Bloomberg*(<https://www.bloomberg.com/news/articles/2017-10-24/saudi-arabia-to-build-new-mega-city-on-country-s-north-coast>), 검색일: 2018. 2. 27).

36) "Saudi Aramco, Hyundai Heavy to make engines and pumps together"(2018. 8. 5), *Reuters*(<https://www.reuters.com/article/us-saudi-aramco-hyundai/saudi-aramco-hyundai-heavy-to-make-engines-and-pumps-together-idUSKBN19Q0KQ>), 검색일: 2018. 3. 8).

37) Benton, Dale(2018. 2. 5), "Behind the scenes of Abu Dhabi's tourism industry procurement setup," *SupplychainDigital*(<http://www.supplychaindigital.com/company/behind-scenes-abu-dhabis-tourism-industry-procurement-setup#>), 검색일: 2018. 2. 27).

38) "Why the UAE is Betting Big on Renewable Energy"(2018. 1. 3), *Smithsonian.com*(<https://www.smithsonianmag.com/sponsored/uae-betting-big-renewable-energy-180967320/>), 검색일: 2018. 2. 27).

39) Raval, Anjali, Neil Hume(2016. 1. 8), "Saudi Aramco confirms share listing deliberations," *Financial Times*(<https://www.ft.com/content/fe31b278-b5fd-11e5-b147-e5e5bba42e51>), 검색일: 2018. 3. 5).

40) "Abu Dhabi's ADNOC Distribution fuel firm IPO raises \$851 mln"(2017. 12. 8), *Reuters*(<https://www.reuters.com/article/emirates-adnoc-ipo/abu-dhabis-adnoc-distribution-fuel-firm-ipo-raises-851-mln-idUSL8N1O82JT>), 검색일: 2018. 2. 27)

- 술탄 알 자베르(Sultan al Jaber) ADNOC CEO는 2017년 11월 ADNOC의 비핵심 자회사에 대한 민영화 및 외국 유망 기업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기업 가치를 극대화해나간다고 밝힌 바 있음.⁴¹⁾

다. 인적자원 개발

■ [자국민 고용 확대 정책 강화] 실업을 증가를 억제하고 자국민의 민간부문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양국은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 추진을 강화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아랍의 봄 이후 민간부문의 자국민 고용을 의무화하는 니타카트(Nitaqat) 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제도 개정을 통해 사우디인의 의무고용 비율을 높여나가고 있음.
- 니타카트 제도는 사우디인의 고용 비율 정도에 따라 비율이 가장 높은 플래티넘(Platinum)부터 가장 낮은 레드(Red)까지 등급이 나누어지며, 기업 규모, 사우디 노동자의 평균임금, 사우디 여성 노동자 비율 등의 사항을 고려하여 등급이 결정되면 이에 상응하는 인센티브나 불이익이 적용됨.⁴²⁾
- 사우디아라비아 노동사회개발부는 2017년 9월부터 각 등급별 의무고용 비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으며 이에 따라 60개 이상의 산업이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보임.⁴³⁾
- 대표적인 사례로 직원 수 10~49명의 소규모 석유 및 가스 부문 기업은 플래티넘 등급을 얻기 위해 충족해야 하는 사우디인 의무고용 비율이 56%에서 66%로 상승함.
- UAE의 연방 및 지방 정부는 자국민 고용 확대를 위한 계획을 꾸준히 추진해왔으며 2013년을 에미라티 제이션(Emiratisation)의 해로 정하고 자국민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계획인 아브쉬르(Absher) 이니셔티브를 발표함.⁴⁴⁾
- UAE 대통령실의 감독하에 인적자원자국민화부가 실행하는 아브쉬르 이니셔티브는 'UAE 비전 2021'의 일환으로 민간부문에 종사하는 자국민 수를 2021년까지 10배 늘린다는 계획임.
- 또한 아브쉬르 이니셔티브는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의 임금 및 혜택 격차를 줄이고 자국민의 지속적인 민간부문 취업을 지원하고자 함.

■ [교육 및 직업훈련 지원] 자국민 의무고용 정책과 함께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인적자원 개발에도 집중하고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는 2017년 7월부터 사우디 국적 학생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는 사이피(Saifi) 프로그램의 도입을 의무화함.⁴⁵⁾

41) "UAE's ADNOC to venture into privatization, oil trading"(2017. 11. 21), *Al Arabiya*(<http://english.alarabiya.net/en/business/economy/2017/11/21/UAE-s-ADNOC-to-venture-into-privatization-oil-trading.html>, 검색일: 2018. 2. 26).

42) Alibhai, Zaheed, Nicola Schofield, Mohammed Haque and Syed Mansoor(2017), Saudi Arabia - Changes to the Nitaqat system and the introduction of a mandatory Saifi program as part of the Saudization drive, *Mobility: immigration alert*, p. 1, EY.

43) PwC Middle East, Services, Tax & Legal, News, 2017, Saudi Arabia to update its existing Nitaqat percentages(<https://www.pwc.com/m1/en/services/tax/me-tax-legal-news/2017/saudi-arabia-update-existing-nitaqat-percentages.html>, 검색일: 2018. 2. 27).

44) Al Zarooni, Mustafa(2017. 2. 9), "UAE law will help boost emiratization," *Khaleej Times*(<https://www.khaleejtimes.com/nation/abudhabi/uae-law-will-help-boost-emiratization>, 검색일: 2018. 3. 6); Abu Dhabi Digital Government, Citizens, Benefits for Nationals, Work and Employment, "Absher" Initiative(<https://www.abudhabi.ae/portal/public/en/citizens/benefits-for-nationals/employment-and-work/absher-initiative>, 검색일: 2018. 3. 6).

45) PwC Middle East, Services, Tax & Legal, News, 2017, The "Saifi" student training program(<https://www.pwc.com/m1/en/services/tax>

- 사이피 프로그램은 직원 수 25명 이상의 민간업체에서 의무적으로 도입해야 하며 인턴십 대상자는 17세 이상의 사우디 학생인.
- 훈련 기간은 약 4주로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학생은 최소 1,500사우디리얄(약 400달러)의 급여를 받게 됨.
- UAE의 아브쉬르 이니셔티브는 자국민 일자리 창출뿐만 아니라 인턴십 기회 제공, 취업 지도, 교육 프로그램 개발 지원 등을 통한 자국민 역량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음.⁴⁶⁾
- UAE는 프로그램을 통해 대학 졸업자에게 인턴십 기회를 제공하여 기술과 역량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함.
- 또한 경제 발전과 함께 필요한 진로 방향을 제시하고 노동 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여 고등 교육기관, 훈련센터,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기관 등을 지원함.

■ [여성 고용 확대] 여성의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있으나 남성보다 여성 실업률이 높은 상황에서 각국은 여성 고용 확대를 위한 정책을 추진 중임.

- 사우디아라비아는 여성의 대학 진학률이 남성보다 높음에도 불구하고 운전 금지, 후견인 제도 등의 사회적 제약으로 여성의 취업에 어려움이 있으나 최근 사우디 내에서 추진 중인 경제·사회 개혁은 여성 노동 참여 가능성을 높이고 있음.
- 사우디 정부는 여성의 운전을 허용하고 재택근무 가능 일자리를 늘리는 등 그동안 여성 취업의 걸림돌 중 하나였던 직장으로서의 이동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2020년까지 전체 사우디 노동력 중 사우디 여성의 비율을 28%까지 높일 계획임.⁴⁷⁾
- 또한 2017년 사우디 정부는 2030년까지 마케팅 및 광고 부문에서 10,000개, 회계부문에서 11,000개, 제약 및 컴퓨터 프로그래밍에서 각각 20,000개, 29,000개의 일자리를 여성에게 제공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으며 2018년 2월에는 처음으로 여성의 입대를 허용하기도 함.⁴⁸⁾

4. 사우디 및 UAE와의 경제 협력 관계

가. 교역

■ [교역]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중동 지역 내 한국의 최대 교역국으로, 한국 전체 교역 중 양국과의 교역 비중은 2008년 7.5%까지 상승하였다가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인 이후 2017년 교역 규모가 다시 증가하였음.⁴⁹⁾

x/me-tax-legal-news/2017/saudi-arabia-implements-the-saifi-student-training-program.html, 검색일: 2018. 3.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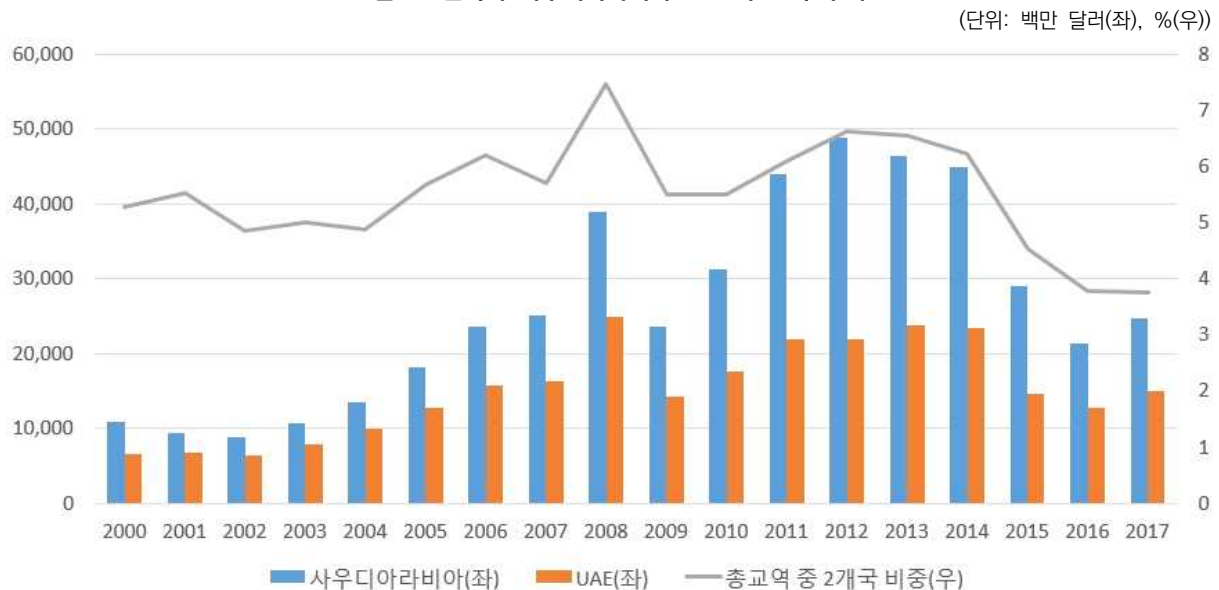
46) Abu Dhabi Digital Government, Citizens, Benefits for Nationals, Work and Employment, "Absher" Initiative(<https://www.abudhabi.ae/portal/public/en/citizens/benefits-for-nationals/employment-and-work/absheer-initiative>, 검색일: 2018. 3. 2).

47) "Saudi Arabia registers 130 percent rise in women workforce"(2017. 7. 6), Al Arabiya(<http://english.alarabiya.net/en/features/2017/07/06/Number-of-working-Saudi-women-spikes-to-130-over-11-million-expats-in-private-sector-.html>, 검색일: 2018. 3. 5).

48) "70,000 jobs awaiting Saudi women in four sectors"(2017. 11. 20), Al Arabiya(<http://english.alarabiya.net/en/business/economy/2017/11/20/70-000-jobs-awaiting-Saudi-women-in-4-sectors-.html>, 검색일: 2018. 3. 5); "Saudi Arabia allows women to join military"(2018. 2. 26), BBC(<http://www.bbc.com/news/world-middle-east-43197048>, 검색일: 2018. 3. 5).

- 2017년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와의 교역 규모는 247억 3,700만 달러를 기록하며 2016년의 213억 8,600만 달러 대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남.
- 2015년 교역 규모는 290억 4,300만 달러로 전년대비 35.4% 하락하였는데 이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수입 규모 감소에 따른 것임.
- UAE와의 교역 추이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2017년 교역 규모는 149억 4,600만 달러로 전년대비 증가세를 보임.
- 2015년 대UAE 교역 규모는 수출과 수입이 모두 감소하여 전년대비 37.2%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수입 하락 폭이 46.8%로 두드러졌음.
- 2016년 교역 규모는 2015년보다 하락한 128억 1,100만 달러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이어감.

그림 8. 한국과 사우디아라비아·UAE의 교역 추이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검색일: 2018. 2. 23).

■ [수출] 2017년 기준 한국의 대사우디아라비아 수출은 51억 4,700만 달러로 2015년 이후 계속된 하락세를 보이고 있으며 대UAE 수출도 3년 연속 하락하며 53억 8,900만 달러를 기록함.⁴⁹⁾

- UAE는 2017년 기준 중동 지역 내 한국의 최대 수출국으로 2012년에 사우디아라비아보다 수출 규모가 감소한 이후 2016년에 다시 사우디아라비아 수출 규모를 넘어섬.
- 2016년 사우디아라비아, UAE로의 수출 규모는 각각 56억 4,400만 달러, 58억 7,000만 달러를 기록함.
- 대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수출 품목은 승용차, 건설중장비, 변압기, 타이어 등으로 특히 승용차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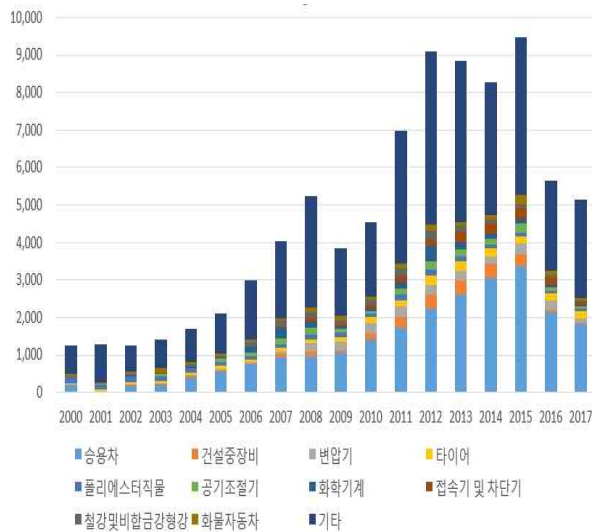
49)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검색일: 2018. 2. 23).

50)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검색일: 2018. 2. 23).

- 승용차 수출액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 누계 수출액 기준 236억 4,200만 달러로 해당 기간 대사우디아라비아 수출액의 28.4%를 차지하였으며 건설중장비가 25억 1,800만 달러로 그 뒤를 이음.
- 대사우디아라비아 주요 수출품인 승용차와 건설중장비의 수출 규모는 유가 하락으로 인한 경기 둔화, 프로젝트 시장 침체 등의 영향으로 2016년부터 큰 폭으로 하락함.
- 대UAE 수출 품목도 승용차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나 사우디아라비아에 비해 그 비중이 크지 않은 편이며 수출 품목이 다양화되어 있음.
- 대다수 품목 수출이 2015년부터 하락하였으나 승용차와 자동차부품, 연초류의 2017년 수출액은 각각 5억 6,300만 달러, 4억 2,000만 달러, 4억 900만 달러로 상승하였으며, 특히 연초류는 2014년부터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음.

그림 9. 대사우디 수출 추이 및 주요 수출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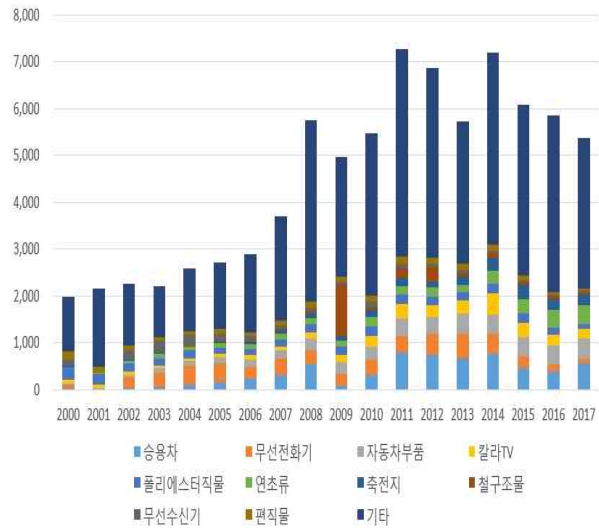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명시된 품목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검색일: 2018. 2. 26).

그림 10. 대UAE 수출 추이 및 주요 수출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주: 명시된 품목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수출액 기준 상위 10개 품목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검색일: 2018. 2. 26).

■ [수입]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로부터의 수입은 원유, 나프타, LPG 등 에너지 수입이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⁵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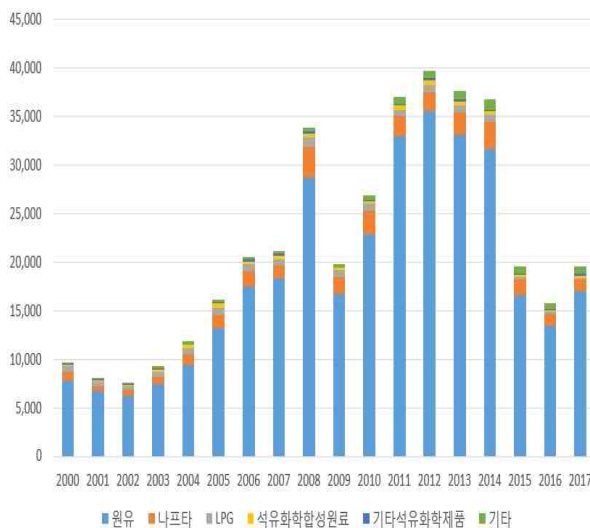
- 양국으로부터의 수입이 에너지부문에 크게 편중된 만큼 2014년의 유가 하락은 2015년 수입 규모의 급격한 감소로 이어졌음.
- 대사우디아라비아 수입 규모는 2012년 397억 700만 달러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2015년에 전년대비 46.7% 감소한 195억 6,100만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에는 157억 4,200만 달러로 더욱 감소함.
- 대UAE 수입도 2013년 이후 하락세를 보이며 2016년에 69억 4,100만 달러까지 감소하였음.
- 2017년에는 유가가 반등하면서 양국으로부터의 수입 규모도 다시 확대되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수입 규모는 각각 195억 9,000만 달러, 95억 5,700만 달러를 기록함.

51)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검색일: 2018. 2. 23).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한국의 주요 에너지 수입국으로, 2017년 한국의 광물성연료 수입 중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수입 비중이 16.8%로 가장 높았으며 UAE는 7.0%로 7위 수입국이었음.
- 2017년 한국의 광물성연료 수입 규모는 1,094억 6,6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로부터의 수입이 184억 500만 달러, UAE로부터의 수입이 76억 4,500만 달러를 기록함.
- 사우디아라비아는 광물성연료 수입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원유의 최대 수입국으로, 2017년 대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수입 규모는 170억 3,2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전체 원유 수입의 28.6%를 차지함.
- 2017년 UAE로부터의 원유 수입 규모는 50억 6,100만 달러로, 전체 원유 수입의 8.5%를 차지하였으며 UAE는 원유 수입국 순위에서 5위를 기록함.

그림 11. 대사우디 수입 추이 및 주요 수입 품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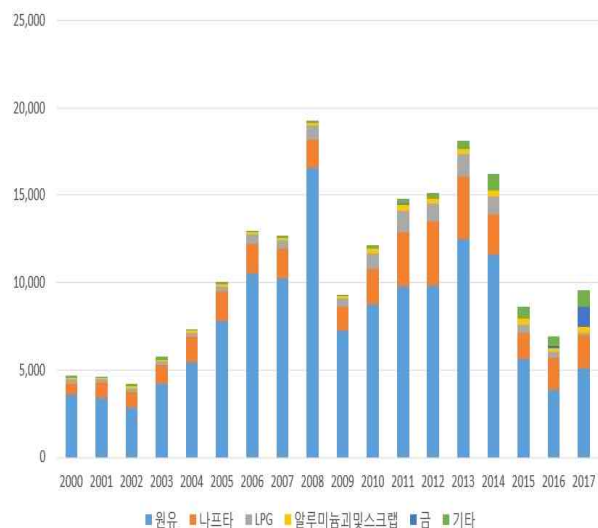
(단위: 백만 달러)



주: 명시된 품목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수입액 기준 상위 5개 품목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검색일: 2018. 2. 26).

그림 12. 대UAE 수입 추이 및 주요 수입 품목

(단위: 백만 달러)



주: 명시된 품목은 2000년부터 2017년까지의 누적 수입액 기준 상위 5개 품목임.
자료: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http://www.kita.net/>, 검색일: 2018. 2. 26).

나. 투자

■ [한국의 대중동 투자] 한국의 대중동 투자 규모는 2014년에 전년대비 큰 폭으로 상승한 이후 2015년 15억 7,000만 달러에 달하면서 최고치를 기록하였으며 2016년은 10억 9,000만 달러로 하락세를 보임.⁵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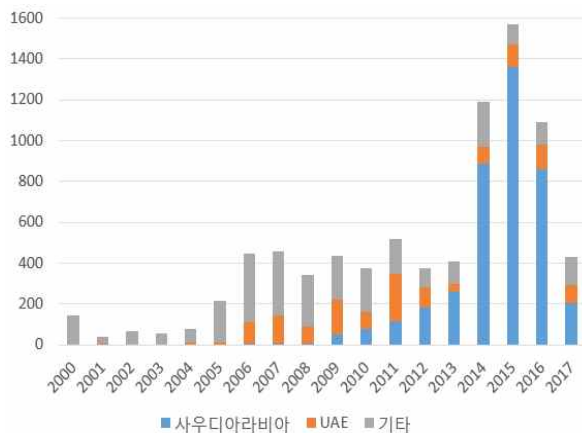
- 2014~16년 대중동 투자 규모 확대는 사우디아라비아, UAE를 중심으로 투자가 늘어난 데 기인한 것으로, 해당 기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 투자 규모는 각각 31억 달러, 3억 달러를 기록하며 사우디아라비아 투자가 대중동 투자의 대부분을 차지함.
- 대사우디아라비아 투자 규모는 2014년 8억 9,000만 달러에서 2015년 13억 6,000만 달러로 상승하였으며 2016년에는 8억 6,000만 달러를 기록함.

52)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2. 24).

- 대UAE 투자 규모는 2014년 7,900만 달러, 2015년 1억 1,000만 달러, 2016년 1억 2,000만 달러를 기록하며 지속적으로 상승함.
- 2017년 9월까지 투자 누계액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중동 지역 내 상위 2개 투자대상국으로, 대 중동 투자 누계액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비중은 각각 43.8%, 14.9%를 차지함.
- 2017년 9월까지 대중동 투자 누계액은 93억 600만 달러에 달했으며,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누계 투자액은 각각 40억 8,000만 달러, 13억 9,000만 달러를 기록함.

그림 13. 한국의 대중동 투자 추이

(단위: 백만 달러)



주: 2017년은 9월까지의 수치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2. 24).

그림 14. 대중동 투자 국가별 누계

(단위: 백만 달러)



주: 2017년 9월까지의 투자 누계액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2. 2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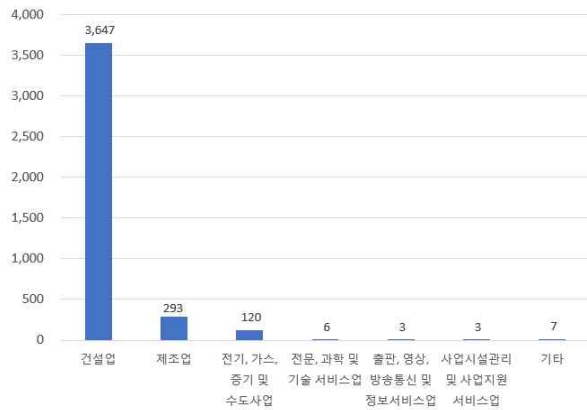
■ [업종별 투자] 중동 내 최대 투자국인 사우디아라비아 투자가 건설업에 집중된 가운데 대중동 업종별 투자 누계는 2017년 9월 기준 건설업이 41억 1,236만 달러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광업이 28억 4,303만 달러로 그 뒤를 이음.⁵³⁾

- 2017년 9월까지 한국의 대사우디아라비아 건설업부문 투자액은 36억 4,684만 달러로 전체 투자의 89% 이상을 차지하고 있음.
- 건설업 다음으로 투자가 많이 이루어진 부문은 제조업과 전기·가스·증기 및 수도 사업으로 각각 2억 9,340만 달러, 1억 1,965만 달러를 기록함.
- 대UAE 투자는 부동산업 및 임대업이 3억 4,292만 달러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함.
- 이외에 광업 2억 5,317만 달러, 건설업 2억 4,652만 달러, 제조업 2억 2,486만 달러로 투자부문이 비교적 다양화되어 있음.

53)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2. 24).

그림 15. 대사우디 업종별 투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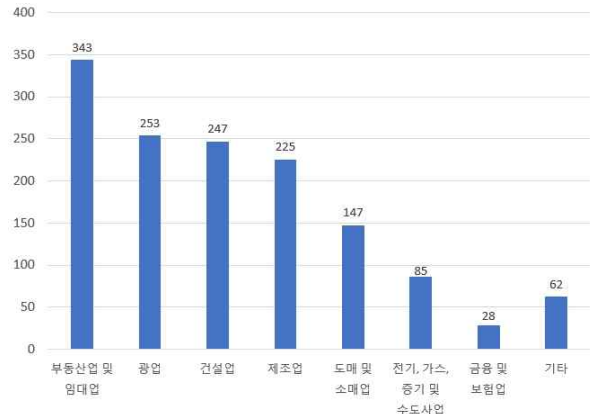


주: 2017년 9월까지의 누계액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2. 24).

그림 16. 대UAE 업종별 투자 규모

(단위: 백만 달러)



주: 2017년 9월까지의 누계액임.

자료: 한국수출입은행, 해외경제연구소, 해외투자통계(검색일: 2018. 2. 24).

■ [중동의 대한민국 투자] 2000년대 이후 중동의 대한민국 투자는 전체 외국인투자 대비 낮은 비중을 보여 왔으나 2015년과 2017년에는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투자액이 높은 증가세를 보이는 등 연도별 편차가 크게 나타남.

- 2015년 중동의 대한민국 외국인직접투자(FDI) 규모는 13억 8,341만 달러로 전년대비 6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이 중 사우디아라비아가 11억 2,733만 달러로 중동 전체 투자의 81.5%를 차지함.⁵⁴⁾
 - 2015년 사우디아라비아의 대한민국 투자는 건설부문에 집중된 것으로, 2015년 6월 포스코건설은 사우디 국부펀드인 PIF와 11억 2,000만 달러 규모의 지분 매각 계약을 체결함.⁵⁵⁾
- 2017년에는 UAE의 투자가 10억 1,448만 달러로 전년에 비해 큰 폭으로 증가하며 중동의 대한민국 투자 규모 상승에 기여함.
 - 2017년 UAE의 대한민국 투자는 부동산부문이 10억 350만 달러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는데, 2018 평창동계올림픽과 관련하여 호텔 및 숙박시설 등 강원도 지역 부동산이 주요 투자 대상인 것으로 파악됨.⁵⁶⁾
- 한편 UAE의 한국 유가증권시장 상장주식 순매수 규모도 2017년 11월에 9,670억 원으로 크게 확대되며 국가별 순매수 기준 1위를 기록함.⁵⁷⁾
 - UAE의 주식 거래 규모는 대체로 전체 거래의 1% 미만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2017년 11월에는 매수액이 1조 1,440억 원에 달했으며, 2017년 전체 매수액과 매도액이 각각 2조 7,930억 원, 2조 620억 원으로 7,360억 원의 순매수를 기록함.⁵⁸⁾
-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식 거래 비중은 대규모 매수 및 매도가 반복되며 2015년 전체 외국인 거래의 4%를

54)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정보, 외국인투자통계(<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검색일: 2018. 3. 6).

55) 이웅(2015. 7. 8), 「상반기 외국인직접투자 89억달러...전년비 14% 감소」, 『연합뉴스』(<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5/07/08/0200000000AKR20150708053900003.HTML?input=1195m>, 검색일: 2018. 3. 18).

56) 한광덕, 조계원(2018. 1. 4), 「UAE, 평창경기장 주변 개발 1조원 투자」, 『한겨레』(<http://www.hani.co.kr/arti/economy/finance/826185.html#csidxd217e5dd0c3c5b18323c4a12a350445>, 검색일: 2018. 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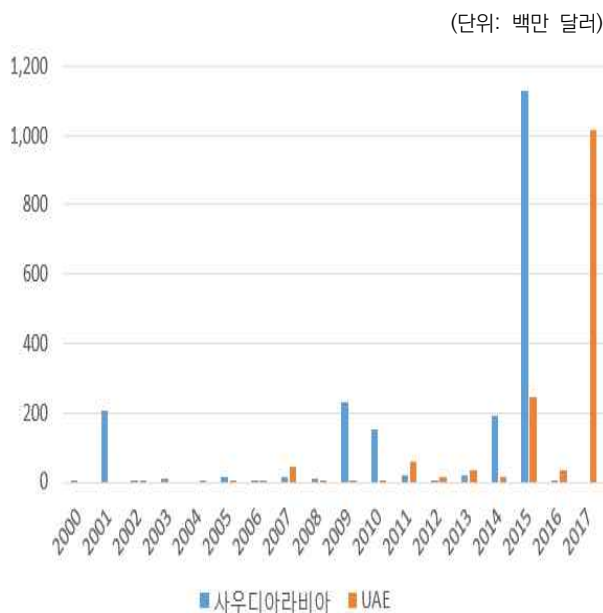
57) 금융감독원, 업무자료, 금융투자, 외국인국내투자동향(<http://www.fss.or.kr/fss/kr/bbs/list.jsp?bbsid=1207397030605&url=/fss/kr/1207397030605&sort=DESC&orderby=MODDATE>, 검색일: 2018. 3. 8).

58) 반올림 계산하여 순매수액과 '매수액-매도액' 금액과는 차이가 있음.

넘어서기도 하였으나 2017년 들어 감소하는 추세를 보임.

- 2015년 SAMA(Saudi Arabian Monetary Authority)는 현대미포조선 주식을 대거 매수하여 2015년 1월 지분 매입액이 1,390억 원에 달하기도 하였으나 2015년 5월부터 매도에 들어갔으며, 이는 저가 매수 이후 차익 실현을 위한 움직임으로 풀이됨.⁵⁹⁾
-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의 주식 거래는 매도액이 7조 1,400억 원, 매수액이 4조 6,520억 원으로 2조 5,000억 원 가까이 순매도한 것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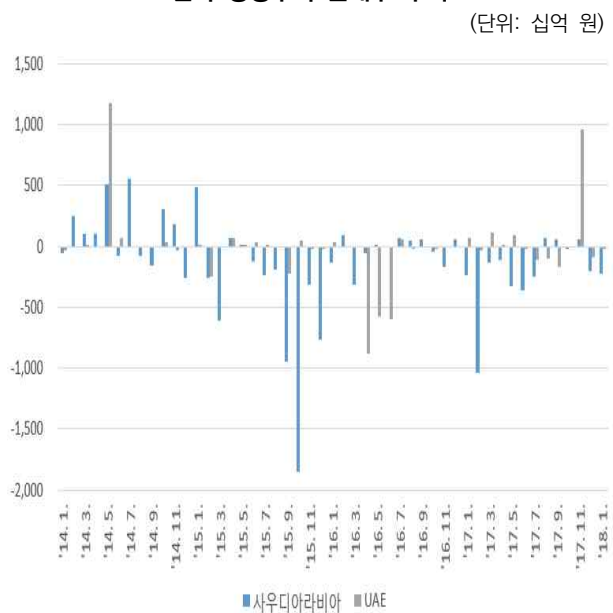
그림 17. 사우디아라비아·UAE의 대한민국 투자 추이



주: 신고금액 기준임.

자료: 산업통상자원부, 정책·정보, 외국인투자통계(<http://www.motie.go.kr/motie/py/sa/investstatse/investstats.jsp>, 검색일: 2018. 3. 6).

그림 18. 사우디아라비아·UAE 투자자의 한국 상장주식 순매수 추이



자료: 금융감독원, 업무자료, 금융투자, 외국인국내투자동향(<http://www.fss.or.kr/fss/kr/bbs/list.jsp?bbsid=1207397030605&url=/fss/kr/1207397030605&sort=DESC&orderby=MODDATE>, 검색일: 2018. 3. 8).

다. 해외건설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건설 시장 동향]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2018년 경제다각화 및 국제 행사 추진 등을 위해 다양한 인프라 프로젝트를 추진할 것으로 보임.

- 그동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건설 시장은 긴축 재정정책 기조에 의한 건설 프로젝트 중단 및 지연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으나 최근 경제다각화 전략 및 국제행사 추진 등을 바탕으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 2017년 12월 기준 사우디아라비아와 UAE가 진행하고 있거나 계획 중인 프로젝트 가치는 각각 1조

59) 김장환(2015. 6. 8), 「SAMA, 현대미포조선 지분 매각 까닭은」, 『더벨』(http://www.thebell.co.kr/free/content/ArticleView.asp?key=201506050100012850000785&svccode=00&page=1&sort=thebell_check_time, 검색일: 2018. 3. 1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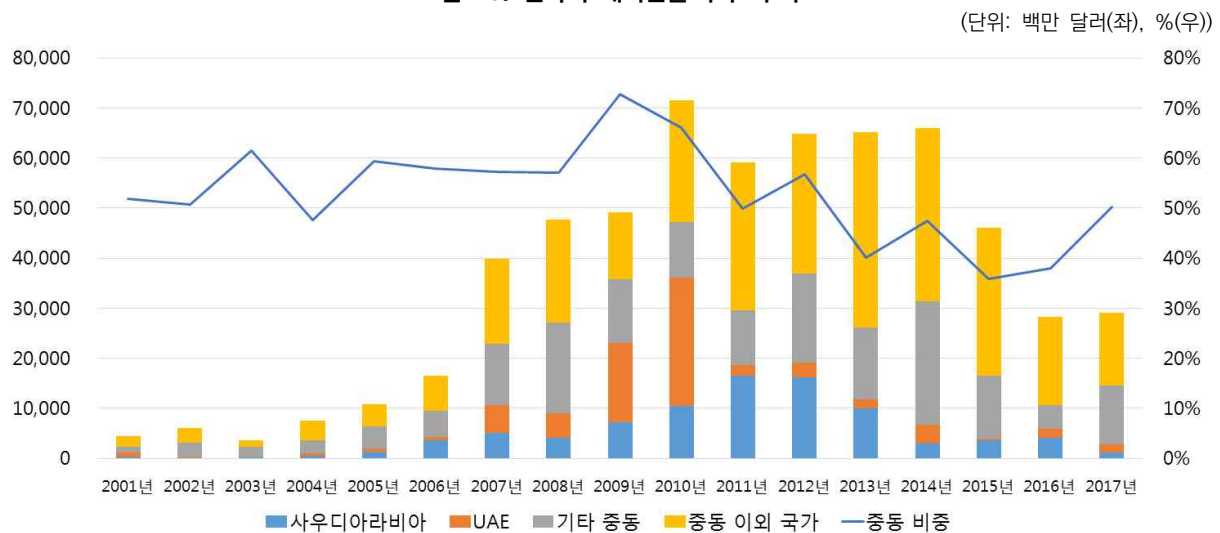
4,415억 달러, 8,693억 달러로 역대 1, 2위를 차지함.⁶⁰⁾

- 민간부문 육성 및 정부 재정 효율화 차원에서 양국 모두 발전, 공항, 철도 등에 대한 PPP(Public Private Partnership) 형태의 발주를 늘려나갈 것으로 전망됨.

■ [대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건설 수주 동향] 우리나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및 UAE 건설 수주는 2010년 이후 금액 및 비중 모두 감소세를 보임.

- 우리나라의 해외건설 수주 중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비중은 2010년 각각 14.7%, 37.7%로 급증하여 두 국가가 전체 수주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기도 하였음.
- 하지만 저유가에 의한 재정수지 악화로 각종 건설 프로젝트가 중단 및 취소되면서 2017년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해외건설 수주 비중은 각각 4.0%(11.5억 달러)와 5.5%(16.1억 달러)에 그쳤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를 제외한 기타 중동 국가 중에서는 이라크(52.3억 달러), 쿠웨이트(20.3억 달러), 터키(14.4억 달러), 카타르(14.3억 달러), 바레인(13.5억 달러)이 높은 순위(2017년 해외건설 수주 금액 기준)를 차지하고 있음.⁶¹⁾
- 우리나라의 대사우디아라비아 및 UAE의 해외건설 수주에서 산업설비부문은 2017년 기준 각각 97.8%, 94.2%로 지나치게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그림 19.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 추이



주: 중동 지역에는 북아프리카 국가들(남수단, 모로코, 리비아, 수단, 알제리, 이집트, 튀니지) 포함.

자료: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연도별 현황(http://www.icak.or.kr/sta/sta_1401.php, 검색일: 2018. 2. 20).

60) MEED, Analysis, Gulf Project Index(<https://www.meed.com/gulf-projects-index-records-increase-annual-value/>, 검색일: 2018. 2. 28).

61)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 건설통계, 연도별 현황(http://www.icak.or.kr/sta/sta_1401.php, 검색일: 2018. 2. 20).

5. 협력 시사점

■ 경제다각화를 위한 중동 산유국의 강한 정책 드라이브는 국제유가 변동성에 따른 리스크 축소, 민간부문 확대, 외국자본 유치 등 탈석유시대 대비를 위해 향후에도 상당 기간 지속될 전망이다.

-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안정적인 차기 왕권 계승과 대이란 경쟁우위 확보 차원에서도 경제 다각화 정책의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한 시점임.
- 이러한 중동 산유국의 정책 변화 속에서 한-중동 경제협력은 단순히 수출시장 확대가 아닌 경제다각화의 실질적인 성과를 끌어낼 수 있는 협력사업에 집중되어야 할 것임.

■ 경제다각화의 핵심 내용 중 하나가 석유산업 이외의 다양한 전략산업 육성인 만큼 우리나라는 산업발전 경험과 선진기술, 인적자본 등을 토대로 산업협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는 경제 및 인구 규모, 산업구조 등이 상이하여 각국의 산업협력 수요도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고부가가치 제조업과 지식기반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산업협력을 강화해야 할 것임.
- 고부가가치 제조업으로는 자동차, 항공기, 의료기기, IT 관련 기기 등에 들어가는 고기능 부품생산 및 조립산업이나 화장품 및 제약산업 등이 협력수요가 많을 것임.
- 제조업의 경우에는 국내 시장만이 아니라 주변국 시장으로의 수출 가능성까지 고려하여 합작투자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지식기반 서비스업으로는 금융 및 법률 자문이나 IT 기술이 접목된 물류업, 유통업 등이 유망할 것으로 전망됨.

■ 중동 산유국과의 에너지협력은 석유 및 가스 자원의 안정적 확보 차원에서 더 나아가 신재생에너지, 스마트그리드, 에너지소비효율 등 다양한 부문에서의 협력을 통해 더욱 강화되어야 함.

- 사막 기후에 특화된 태양광 패널이나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스마트그리드에 필요한 지능형 원격검침설비(Advanced Metering Infrastructure) 등의 공동 연구개발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에너지소비효율 개선을 위한 정책 자문이나 건물에너지 관리시스템(Building Energy Management System) 도입 등도 정부간 또는 민간부문간 협력을 통해 성과를 거둘 수 있는 협력사업이 될 것임.

■ 위에서 언급한 산업협력이나 에너지 협력사업에는 대기업 이외에 국내 중소·중견기업의 참여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정부의 국정과제인 중소기업 주도의 혁신 성장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국내 중소기업의 해외진출 역량이나 현지 투자에 필요한 금융조달 능력이 아직 부족한 만큼 정부 및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 사우디아라비아와 UAE의 인적자원 개발정책에 부응하여 국내 직업훈련 경험과 전문인력을 연계하는 협력사업을 발굴할 필요가 있음.

- 국내 제조업체, IT 업체 등에서 은퇴한 엔지니어를 활용하여 현지 기술전수 및 전문인력 개발사업을 확대할 수 있을 것임.
- 또한 여성 고용 비율을 늘릴 수 있는 마케팅, 컴퓨터 프로그래밍, 간호사 등의 직종에 대해 현지에서 직업훈련센터를 운영하고 초청연수사업을 통해 인력 교류를 확대한다면 양국간 협력기반을 넓힐 수 있을 것임. **KIEP**